이공계 학생 중심 장학생…국내 과학기술 발전 지원  
  
  
  
(첫줄 오른쪽부터)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이순형 이사장, 이태성 사무총장이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제 32기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관계자 및 장학생들과 함께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. /사진제공=세아홀딩스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제32기 장학생 80명을 선발하고 세아타워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.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국내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생을 위주로 매년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. 올해 선발된 제32기 장학생 중 70% 이상이 이공계열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. 장학생에게는 2년 동안 등록금 본인 부담액 전액과 함께 국가장학금 감면액의 일부를 자기 개발비로 더해 1인 최대 연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.매년 여름방학 기간 중 장학생 캠프 운영, 장학생·졸업생 간 교류 행사 개최로 장학생 간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세아이운형문화재단이 개최하는 오페라 공연 초청 등 다양한 혜택도 장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.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장학금 지원 이외에도 2022년부터 신설한 '커리어챌린지'를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. 이는 창업에 뜻이 있는 청년들이 창업준비활동을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 장학재단 최초의 장학사업으로 2년간 창업하거나 시제품을 출시하는 등 다양한 성공 사례도 배출됐다. 제3기 커리어챌린지는 오는 20일부터 7일간 접수할 수 있으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.이순형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이사장은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"장학생 모두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잠재력과 역량을 품고 있다고 믿고 있다"며 "각자 간직한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기를 바란다"고 말했다.